

# KB스타즈 2연패냐? 우리은행 설욕이냐?

KB, 강아정·손튼 등 우승멤버 그대로 대표팀 차출될 박지수의 체력이 변수 첫 200승 앞둔 위성우 정상탈환 의지 나윤정·박지현 등 신에 성장에 기대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가 19일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천 KB 하나은행과 부산 BNK 썸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는 팀당 35경기에서 30경기로 축소했다. 여자농구대표팀의 2020도쿄올림픽 예선전 출전으로 각 팀의 핵심 선수 차출이 불가피해 올 11월과 내년 2월 등 2번의 휴식기가 예정돼 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청주 KB스타즈가 막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2연패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용인 삼성생명과 국내 가드, 포워드진이 좋은 아산 우리은행도 호시탐탐 정상을 노린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PO) 진출에 실패한 KEB하나은행, BN



KB스타즈 박지수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

K, 인천 신한은행은 ‘봄 농구’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며 출격 준비를 마쳤다.

WKBL 관계자는 15일 “BNK 썸이 창단하면서 이제 부산에서도 여자프로농구 경기가 열리게 되는 등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라며 “재도약을 위해 뛰는 여자프로농구가 이번 시즌 더욱 흥미로워질 전망이다. 팬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 선수들에게 좀 더 힘을 주는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KB스타즈 2연패의 키를 쥔 박지수

박지수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PO) 최우수선수(MVP)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팀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놓았다. 그 덕분에 KB스타즈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을 통해 우승컵을 안았다. KB스타즈는 지난 시즌 우승멤버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염윤아(32), 강아정(30), 심상영(27), 박지수(21)에 외국인선수도 지난 시즌에 활약했던 카일라 손튼(27)을 다시 데려왔다.

KB스타즈의 키는 박지수가 쥐고 있다. 박지수는 지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처음으로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무대를 경험했다. 식스맨으로 출전시간이 적었지만 박지수는 시즌 초반 경기력과 체력이 썩 좋지 않았다. 시즌 중반부터 살아난 그는 프로 입단 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박지수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미국을 다녀왔다. 역할은 1년 전과 같은 식스맨이었고, 출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도 초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시즌 도중 대표팀 차출이 확실시 된다. 체력적으로 더 힘든 시즌이 될 수 있다. 박지수의 활약상과 몸상태가 KB스타즈의 시즌 성적을 좌우할 뿐 아니라 리그 판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최초 200승과 정상 탈환 노리는 위성우

위성우 감독(48)은 지난 시즌까지 우리은행 지휘봉을 잡고 정규리그에서만 190승을 챙겼다. 199승으로 통산 최다승 감독에 올라있는 임달식 전 신한은행 감독(55)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번 시즌 10승을 추가하면 1위로 올라서며 여자프로농구 최초로 정규리그 200승을 달성한 사령탑이 된다. 팀당 30경기로 줄었지만 우리은행의 전력은 감안하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 감독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2017~2018시즌까지 통합 6연패를 차지한 우리은행은 타이틀 탈환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까지 많은 역할을 한 임영희(39)가 은퇴해 코치로 변신한 빈 자리를 나윤정(21), 박지현(19) 등 성장하는 신예들로 커버한다는 계획이다. 타 팀에 비해 낮은 높이는 빠른 농구와 우리은행이 자랑하는 끈끈한 수비조직력으로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 비 시즌 동안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왕조를 구축하고 여자프로농구를 호령한 우리은행이 이번 시즌 부활할지도 관심사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펜싱 오상욱 최고선수 영예 정정용 감독 ‘대한민국 체육상’ 지도자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제57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및 2019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열었다. 남자펜싱의 간판 오상욱(성남시청)이 올해 대한민국 체육을 빛낸 최고의 선수로 뽑혔고,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패거리를 이끈 정정용 감독이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또 우리나라 특수체육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홍양자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특수체육상, 부산진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이빙 자매’ 김재현·승현을 길러낸 김양섭 씨가 장한 아버지상을 수상했다.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는 총 60명(청룡장 13명·맹호장 11명·거상장 14명·백마장 6명·기린장 2명·체육포장 14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스포츠7330’ 생활체육 체험수기 총 36편 선정

김성기 씨 ‘꽃보다 마라톤’ 대상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생활체육 7330(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실시한 생활체육 수기 공모전의 수상작 총 36편(어린이·청소년부 18편, 일반부 18편)을 최종 선정했다.

대한체육회는 5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뽐뽐!) 재미(뽐뽐!) 감동(뽐뽐!) 스포츠7330!’이라는 주제로 생활체육을 통해 느낀 이야기, 경험담 등을 공모했다. 공모전에는 927편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철의)가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가렸다. 일반부 대상은 ‘꽃보다 마라톤(김성기)’이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금상(1명 100만원), 은상(2명 50만원), 동상(4명 25만원), 입선(10명 10만원)에게는 상금과 함께 대한체육회 회장상이 주어진다.

어린이·청소년부에서는 ‘마지막 춤은 할머니와 함께(박기연)’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어린이·청소년부 수상자 18명(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 입선 10명)에게는 대한체육회 회장상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 등이 부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 작품은 웹툰, 4컷 만화 등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대한체육회 홍보 매체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 KBL 신인 드래프트, 총 41명 참가

KBL은 15일, “11월 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2020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일반인 테스트 합격자 5명을 포함, 총 41명이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8일 공시한 대한민국농구협회(KBA) 소속 선수인 박정현, 김진영(고려대), 김경원(연세대), 이윤수(성균관대), 김형민(안양고) 등 36명과 14일 일반인 테스트를 통과한 국제농구연맹(FIBA) 3X3 U23 대표 김훈, 브리검대 출신 이주환과 김인식(경희대), 신선재(신한대), 홍석영(동국대) 등 5명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지욱 기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뿐입니다”...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대한 개막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했다. 선수단이 15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입장하고 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서울 일원에서 펼쳐지며 19일까지 5일간 30개 종목에 걸쳐 자웅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2020도쿄패럴림픽 이전 마지막 국내 종합대회이기도 하다.

## 주공격수 토종, 궂은 일은 외인...KCC의 신개념 농구

도시·윌리엄스, 득점보다 리바운드 송교창·이정현 등 국내선수 핵심슈터

농구는 희생이 필요한 스포츠다. 경기당 20점 이상을 책임지는 스코어러가 수비까지 소화하기에는 체력 부담이 크다. 이들을 대신해 상대 주요 공격수를 막거나 스크린을 걸고 리바운드 싸움을 하는 ‘블루 컬러 워커’가 필요하다. 국내 지도자들은 이를 ‘궂은 일’이라고 표현한다.

국내프로농구에서 득점은 주로 외국인 선수가 담당한다. 궂은 일을 하는 ‘희생’은 국내선수의 몫이다. 전주 KCC는 반대로, 국내선수의 득점을 돕기 위해 외국인들이 희생한다.

KCC는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초반 4경기(3승1패)에서 경기당 88.5점을 기록 중이다. 서울 SK(평균 88.6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득점이다. 고득점 팀이지만, 외국인 2명(리온 윌리엄스·조이 도시)의 득점 합계는 평균 18.7점에 불과하다. 윌리엄스가 평균 14.8점, 도시가 평균 4.3점이다. 둘의 득점을 합쳐도 득점랭킹 5위 안에 들지 못한다. 대신 송교창(평균18.5점), 김국찬(평균13.3점), 이정현(평균12.0점) 등 국내선수들의 득점이 높다. 송교창은 전체 득점 6위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송교창 조이 도시

는 만족스럽다. 골밑이 약한 KCC는 애초부터 리바운드와 골밑 수비에 감정이 있는 선수를 원했다. 윌리엄스(평균8.7리바운드·8위)는 KBL에서 검증된 리바운더다. 도시(평균 9.7리바운드·4위)는 ‘궂은 일’로 미국프로농구(NBA) 무대를 밟은 선수다. 득점력이 아쉬워도 리바운드와 스크린, 골밑 수비만큼은 최고다. 국내선수들의 든든한 보디가드인 셈이다.

물론, 우려는 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다. 확실하게 득점을 책임질 외국인도 필요할 시기가 반드시 온다. 윌리엄스와 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과 같을 수는 없다.

다만 국내선수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들이 희생하는 KCC의 ‘신개념 농구’는 올 시즌 초반 프로농구에 ‘국내선수도 공격 역할을 부여받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올림을 전하고 있다.

## 가성비 굿·만능 플레이어 KBL “필리핀 경력자 우대”

고양 오리온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즌 초반부터 부상 악령이 덮쳤다. 외국인 포워드 마커스 랜드리(34)가 10일 부산 KT와의 홈경기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했다.

오리온은 부라부라 울루 아슬루(31·195cm)를 대체 영입했다. 아슬루는 최근까지 필리핀리그(PBA) 엔텍스 로드 워리어스에서 뛰다가 방출됐다. 바이아웃 부담이 없고 몸값도 낮아 영입이 가능했다. PBA 가버너스컵에서는 5경기에 출전해 평균 22.6점·12.2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아슬루는 19일 서울 SK와의 홈경기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국내 프로농구에는 아슬루와 같이 PBA를 경력 선수가 유독 많다. 아슬루를 비롯해 멜로이 제임스(서울 삼성), 버논 맥클린(창원 LG), 머피 할로웨이(인천 전자랜드), 크리스 맥컬러, 브랜든 브라운(이상 안양 KGC), 윌리엄스(부산 KT) 등 7명이나 된다. 이중 맥컬러는 2019년 커미셔너 MVP다.

PBA경력자가 국내에서 각광 받는 이유는 ‘만능’이기 때문이다. 유럽리그의 경우, 자국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 외국인들은 ‘롤 플레이어’로 활용이 된다. 반면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는 외국인들이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비, 속공 등 다방면에 걸쳐 활약해야 한다. 거기다 KBL과 PBA는 외국인 연봉 차이에 코지 않다.

PBA도 KBL을 주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귀화선수인 라건아(울산 현대모비스)는 KBL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17년 PBA 퓨어푸드 핫샷에 입단, 커미셔너컵을 뽐내 있다.

정지욱 기자